

“강요 못이겨 했던 그 일 역사에 남겨두어야 한다”

나눔의집, 광복절 맞아 위안부 할머니 흉상 제막

“우리가 강요에 못 이겨 했던 그 일을 역사에 남겨두어야 한다.” (고 김학순 할머니)
 “일본 너희들 왜 그랬냐.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고 강덕경 할머니)
 “일본 군인이 나를 잡으러 오는 악몽을 매일 꾸다.” (고 문필기 할머니)
 “학생들이 역사를 바로 알아야지 역사를 모르면 우리처럼 당한다.” (고 박두리 할머니)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을 폐쇄해야 한다. 일본은 전자제품은 잘 만들면서 교과서는 왜 못 만드는 거냐.” (고 김순덕 할머니)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간 많은 삶을 살아야 했던 위안부 할머니들.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와 일본정부의 진실어린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활동했지만 끝내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할머니

들이 나눔의집에 제작돼 우리 곁에 계속 머무르게 됐다. 나눔의집(원장 원행스님)은 지난 13일 광복 66주년을 앞두고 경기도 광주 퇴촌면 나눔의집에서 개관13주년 기념식 및 흉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나눔의집에는 김학순, 강덕경, 김순덕, 문필기, 박두리 등 5명의 할머니의 흉상이 세워져 눈길을 끌었다.
 나눔의집 원장 원행스님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교과서까지 왜곡하며 역사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독도침략의 야욕을 버리고 위안부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나눔의집은 세계의 양심 있는 단체와 연대해 인권과 역사를 배우는 교류의 장이 되겠다”며 “일본이 저지른 국가폭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과를 받아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제 나눔의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옥순, 이윤녀, 이옥선, 강일출, 배춘희 할머니도 행사에 참석해 흉상을 어루만지며 ‘이제 편히 쉬시라’고 마음속으로 발원했다. 흉상 속 할머니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편안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공동협력 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흉상 제작은 1997년부터 나눔의집을 찾아 봉사활동을 해온 조카가 안치홍, 이행균 씨가 맡았다. 안치홍 씨는 이날 “쉬운 작업이 아닌데도 흉상 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이곳이 우리 역사를 알리는 교육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할머니들의 생전 활동은 흉상 좌대 석판에 기록돼 허투루 흘려보내선 안될 소중한 가르침으로 남았다. 김학순 할머니는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박두리 할머니는 공식 사회와 국가적 배상을 요구하며 2000년 관부재판에 원고로 참가했다. 강덕경, 김순덕 할머니는 ‘빼앗긴 순정’, ‘뭇다린 꽃’ 등의 그림으로 위안부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문필기 할머니는 국내외 증언활동으로 2000년 국제인권변호인단 인권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종원 민주당 국회의원, 인천외고 등 전국중고생자원봉사연합회원 및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원행스님과 이옥선 할머니가 지난 13일 경기도 광주 퇴촌면 나눔의집에서 고 강덕경 할머니의 흉상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미소를 짓고 있다.

경기 광주=홍다영 기자



지난 12일 강원도 인제의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린 만해축전 입재식 및 만해대상 시상식.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이며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이 축하 법문을 하고 있다.

“현재-과거 소통에 불교문학 중요”

총 82편 논문 발표
 2011만해축전 개막
 총재 자승스님 참석
 만해대상 직접 시상

평화와 소통을 주제로 한 ‘2011만해축전’에서 총 82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지난 12일 만해마을에서 열린 현대불교문인협회와 창작21작가회의 심포지엄에서 ‘소통과 문학’이 집중 조명됐다.
 ‘창작21작가회’의 초청심포지엄에서 ‘인도네시아 문학 현실’을 발표한 토미 크리스토포 인도네시아대학교 교수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비극에 공통점이 있다며 ‘기억하기와 참여하기’란 패러다임을 통해 “기억 형성은 사건과 그 표현과의 공백에서 일어난다”며 “여기에 권력과 국가가 기억이란 이름으로 행동할 때 역사이고, 상상력의 문학작품은 역사적으로 사건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서 소설은 과거와 협상하는 장소”라고 규정했다.
 소통을 주제로 한 문인들의 집중점은 현대불교문인협회의 세미나에서 두드러졌다. ‘현대시에 나타난 불교와 기독교의 소통’에 대해 고운기 교수(한양대)는 “불교는 보이지

않는 배경이라, 불교의 문제를 의식적으로 작품화하려는 의도 너머에 불교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 시인들은 종교사이의 소통이 종교의 무게를 갖는 다른 매개를 통해 자연스레 이어진다”며 그 사례로 박목월 시를 인용하고 “한 몸에서 소통한 시인 박목월의 경우 기독교와 불교의 소통 가운데 어머니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문화시대의 이웃과 소설’에 대해 박정호 교수(순천대)는 “우리 사회가 전통적인 이웃 사랑이 불가능하게 제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설과 같은 문학은 이웃사랑의 불가능을 고발하는 행위가 공간”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다문화 가정에 대해 경계없이 받아들이기 위한 우리의 선택이 지금의 우리 화두라며 “소설은 이에 대해 지속적인 질문을 던질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유심작품상을 수상한 강은교 시인과 김일연 시조시인, 홍용희 평론가 등에 대한 시상식은 만해마을에서 열렸으며, 만해축전 입재식을 겸한 만해대상 시상식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 12사단 군악대와 귀둔초교 사물놀이반과 연합합창단 등이 출연했다.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주최하는 축전은 5개의 문예행사와 축전 대동제 등이 지난 6월 16일부터 16개 단체의 학술심포지엄 등으로 진행되며 오는 9월 2일 막을 내린다. 조국독립과 겨레사랑으로 일관한 만해스님의 민족·자유사상을 선양하려는 만해축전은 만해학회 민족문제연구소 한국문인협회 등 22개 단체가 주관했다.

社告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합니다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와 불교신문사는 라오스 어린이들을 위해 비엔티엔시 싸이타니구 지역 ‘나용 움마이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COLA(Cool Learning Asia)’ 공동 캠페인을 펼칩니다. 1병의 콜라는 한 구와 1만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콜라 한 병은 학교건축과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라오스 어린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불자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주 최: 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
- 주 관: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
- 기 간: 2011년 12월 31일까지
- 목 표 액: 5000만원
- 후원방법: 1만원
- 후원계좌: 외환은행 630-007156-170
예금주 지구촌공생회
- 문 의: 지구촌공생회 (02)3409-0303
불교신문사 (02)733-1604

사찰법 제정 위한 공청회

24일 개최

조계종 중앙종회 중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법안스님)는 오는 24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사찰법 제정안 성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

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사찰법’을 제정하기 위해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종회의원 주경스님이 사회를 맡는 이번 공청회는 종헌중법제개정특위 위원장 법안스님이 ‘사찰 등록 및 관리제도의 현황과 문

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뒤 총무원 기획실장 정만스님,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원혜스님, 중앙종회의원 지홍스님, 강화 적석사 주지 선암스님, 중앙종회의원 탁연스님 등이 토론을 펼치게 된다.
 사찰법 제정안 자료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에서 미리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물이 만드는 똑똑한 세상이

빗물을 모아 공장을 움직이고 물로 도시전체를 밝힙니다.
 삶의 터전인 논밭도 알아서 척척 가꾸주고,
 기름없이도 자동차를 생생 달리게 하는 똑똑한 물!
 물은 깨끗한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입니다.
물로 더 행복한 세상, K-water가 만들어 갑니다.